불교 나라 '미얀마' 관심 갖는 계기로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㉔ 연재를 마감하며

"당신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네! 미얀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인연을 중시하는 것처럼, 나 또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약 6년전 미얀마에 방문해서 우연히 만난 NLD 원로의원의 비서분은 나를 보자마자 "전생의 딸 같다. 유학 오면 우리 연구소에서 머물러라"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 유학을 하면서 나는 그 분의 연구소에서 미얀마인 연구원 언니 2명과 함께 지내고 있다. 미얀마 아버지의 연구소는 한국의 KDI를 본 떠 미얀마에 MDI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얀마 양곤대학교 오리엔탈학과에 입학한 후, 입학할 때 나를 받아줬던 학장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다. 새로 학장 교수님이 되신 분은 나를 보자

특별한 인연으로 미얀마 향해
'미얀마의 아버지' 등 인연고리
김정숙 영부인 미얀마 방문 땐
행사 수행단 업무 받아 돕기도
불교학부 시절 받았던 도움들
'불연'으로 회향하는 계기 삼아



양곤대 오리엔탈학과 교수님들과 첫 논문을 초록하는 모습. 학장 교수님은 필자를 '한국 딸'이라고 부르며 매일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다.



미얀마 큰 스승 시따구 스님과 함께한 필자.



필자는 '아세안 트레인' 미얀마팀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참여했다.

마자 '박사과정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잘 도와주마. 넌 나의 한국 딸이야'라며 매일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연구실에도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주말이면 본인의 집에서 맛있는 미얀마 음식을 손수 해 주신다. 한국에 미얀마 고승이신 시따구 스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정말 자연스럽게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수많은 한국인 중에서 스님은 내 머리에 손을 올려 주셨고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유를 했다. 지금도 양곤에 있는 스님 절에 가면 '시따구 스님이랑 사진 찍은 한국 여자애 맞죠?'라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곤 한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한국 사람들은 "혹시 부모님께서 미얀마에서 사업하세요?"라고 물어본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저희 부모님은 미얀마 근처도 못 가 보셨어요"라고 대답한다. 몇 해 동안 미얀마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인연의 힘을 느꼈다. 양곤대학교에 내가 입학하기 전 꽤 많은 한국인들이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입학하려고 노력했다고 들었다. 과연 그분들이 나보다 실력이 없었을까? 나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라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 다만 나는 내가 가진 미얀마와의 인연, 미얀마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 강력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 포스코 청암재단의 아시아지역전문가 양성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내가 장학금을 수령한 그 다음 해부터 포스코의 정책이 바뀌어 새로운 장학생은 뽑지 않는다.

2019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얀마가 민주화된 이 후 미얀마에 첫 방문을 했다. 박사과정 학생이었지만, 운이 좋게도 국빈방문 행사 중 김정숙 여사님의 양곤외대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미얀마 유학을 언제 갈지도 모르는 20대 초반부터 아득하게 꿈꾸던 '유학생 시절 국빈방문 수행하기' 원력이 이루어졌다. 이 원력 또한 다양한 인연 조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보다 미얀마에 더 빨리 와서 자리 잡았지만 국빈방문 행사에 초청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웃음 섞인 질투도 많이 받았다.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가난한 이유가 불교 국가여서 그런 것 같다. 설명해 봐라"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 반박할 이유는 많지만, 부처님께서도 침묵하신 열네가지 무의미한 질문인 십사무기(十四無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어 보일 뿐이다. "미얀마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어서 한국 관련된 사업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혹은 "인건비가 저렴해서 진출해볼까?" "기회의 땅이라고 하니 사업을 해볼까?"라며 미얀마의 '진출'에만 목적을 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또 다른 봉변에 부딪친다. "미얀마 사람들 수준이 많이 낮아서 내 지시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전화를 안 받는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 등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가치관과 문화를 알지 못 해 미얀마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혹은 '생활이 너무 불교에 젖어 있고 스님만 보면 땅바닥에 주저 앉기 바쁘다' 고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난다. "미얀마에 탑이 많아서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미얀마를 연구하고 싶은데 왜 불교를 공부해?"라는 다소 순수한 질문들을 처음에 마주했을 때는 '미얀마의 일상생활부터 역사까지 불교 아닌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질문하지?' 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어쩌면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 타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중에 가서 미얀마에 관련된 책을 찾아봐도, 신문을 검색해도 '위빠사나 명상' '미얀마 바간 여행기' 등이 주로였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불교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미얀마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얀마의 특수한 사정과 문화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원력이 있었다. 유학을 하면서 한국에 미얀마 관련된 일로 잠깐 입국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 한번 만난 현대불교신문 기자님과 인연으로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칼럼을 쓰게 되었다.

한국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얀마에는 이와 비슷하게 'Yay Sat Shi Yin Pyan Sone Mae(예싹씨인뺀쏭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거예요)' 'Kan Ma Kone Yin Pyan Sone Mae(깐마꼰인뺀쏭매 운명이 안 끊어지면 다시 만날 거예요)' 라는 말을 자주한다.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거나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인연인가봐. 인연이 있어.' 라는 말로 특별한 기분을 전한다. 어쩌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미얀마' 라는 실타래는 '나' 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얀마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종종 '문화를 알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 는 말을 한다. 미얀마의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숨결은 과거를 관통해서 현재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아침마다 탁발하는 스님들께 아침밥을 보시하고, 집 안에 작은 법당을 계층의 상관없이 모두가 소유하며,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스님들과 같이 절로써 예를 표현한다.

남자라면 누구든 한 번씩 출가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생에 한 번은 절에서 명상 안거를 보낸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마다 불교와 관련된 행사를 국가적으로 진행하며, 새해가 되는 4월에는 액운을 씻기 위해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부처님께 새해 소망을 발원한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외교를 하기 위해 만나는 미얀마의 정치인 · 사업가 · 소비자 모두 미얀마 국민으로서 그들의 심안에는 불교적 가치관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라는 글을 통해 '현대불교신문' 독자 분들에게 '미얀마' 라는 인연의 작은 줄을 잇는 계기가 돼 기뻤다. 첫 연재글을 쓰던 날,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시절 받은 장학금의 작은 회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 라는 원력을 세웠다. 당시 스님들과 불자분들의 정성이 모인 장학금으로 미얀마 양곤대학교에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면서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글이지만, 늘 정성스럽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제 글을 담아 주신 현대불교신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의 인연에 감사하며, Yay Sat Shi Yin Pyan Sone Mae(예싹씨인뺀쏭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거예요.) 〈끝〉

〈양곤대 박사과정〉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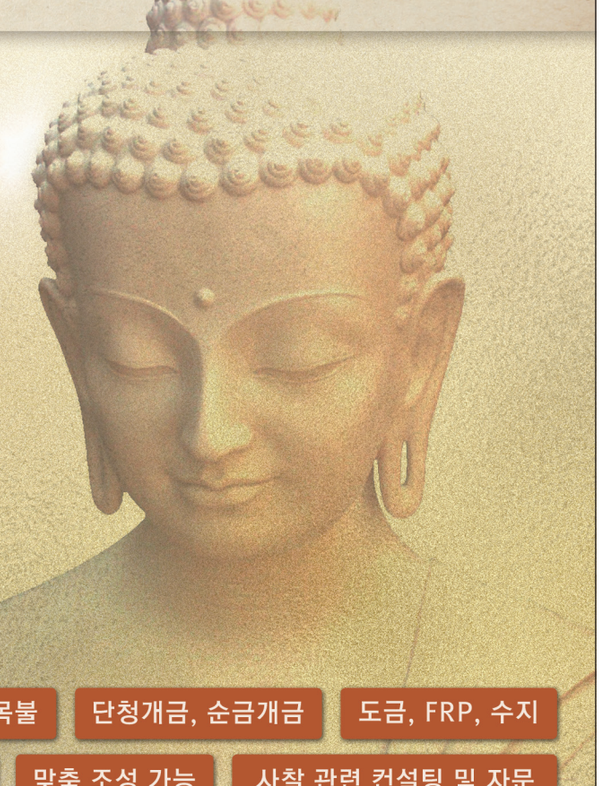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닫집, 운각 특수불, 동불, 목불 단청개금, 순금개금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위패제작 건 축 맞춤 조성 가능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